

제주교육 민감 현안, 공론화 테이블 오를까

교육공론화위, 편안한 교복 이어 두번째 의제 선정 돌입 국제학교 추가 설립·야간자율학습 지속 여부 등 검토 "과급력 큰 의제 선정 가능성... 공론화로 갈등 줄일 것"

지난해 '편안한 교복(중·고생 교복 개선)' 도입에 불교를 띤던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새로운 의제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만한 의제가 공론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공론화 2호 의제 선정에 머리를 맞댄다. 지난해 이석문 교육감에게 중·고등학교 교복 개선을 정책 권고한 데

이어 두번째 행보다. 도교육청은 도민과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처음으로 공론화위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공론화 2호 의제 후보도 추려졌다. 공론화위원들의 추가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크게 8개 의제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민 500명이상이 청구한 청원과 제주도의회의견 등이 반영된 결과다.

현재까지 나온 의제에는 교육부의 외국어고 폐지 결정에 따라 일반

고로 전환되는 제주외고 모형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에 부치는 의견이 담겼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불허 결정을 내렸던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추가 설립과 교육청과 방과 후강사 간의 이견이 큰 시간당 강사료 전환 폐지도 후보에 올랐다. 경기도교육청 등의 시행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렸던 야간자율학습 지속 여부와 운영 방법 개선을 비롯해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중등학교 표현의 자유 보장 등도 논의 대상이다. 이외에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 허용,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보 컴퓨터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올해 공론화위에선 민감한 교육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평이한 주제를 다뤘다면 올해는 외교 일반고 전환, 학원휴무제 등과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의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론화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줄여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론화 2호 의제가 선정되면 여론조사, 토론회 등의 속의 과정이 이어진다. 공론화위는 이같은 과정을 모두 마쳐 오는 5월 중에 두번째 정책 권고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나온 여덟 가지 의제에 대해 공론화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제가 결정될 것"이라며 "오는 2월 중순 전에는 의제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선택 2020 제주의 미래 D-96

“보수대통합 위한 범보수 후보 단일화”

서귀포시 강경필 예비후보 “3무 의원 교체” 주장 제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강경필(56·사진) 예비후보가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강 예비후보는 9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교체를 위해 보수대통합을 위한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범보수 예비후보와 범보수 출마후보군 모두가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범보수 예비후보 및 출마후보군들과 법 개정안 등 제주도민들의 올바른 의견을 해결하지 못한 무능 등

3무(三無) 국회의원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3무 의원 교체를 위해 보수대통합을 위한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 예비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도민들의 올바른 의견을 해결하지 못한 무능 등

청년정책 소통창구 역할 서귀포시 청년위원 모집

서귀포시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 소통창구 역할을 할 제2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5명을 이달 2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거나 근무지가 서귀포시인 만 19~39세 청년이다.

시는 청년위원들에게 소정의 참여수당과 청년정책 관련 행사 참가, 도의 교류활동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의체에서 제안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신청은 시 평생교육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나 평생교육지원과(760-3832)로 문의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시금치 수확... 분주한 손길 9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밭에서 시금치 수확에 나선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상국기자

제주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 해상 제외

육상기지 44만5㎡ 통제구역 남방파제 초소 제한구역으로

국방부가 강정 해군기지 내 일부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9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해군기지 내 육상기지 44만5㎡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남방파제 끝단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를 받

아 이뤄졌다. 이번 신규지정에는 해상은 제외하고 육상 해군기지내 군 시설과 남방파제 끝단에 위치한 해군초소 부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군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육상시설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해상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해군기지지정대는 지난해 10월 해군기지의 해군 지휘, 행정,

지원시설이 있는 육상구역 44만㎡를 비롯한 일부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합동참모본부와 해군본부에 제출하고 제주도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에 “진정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되기 위해서나 크루즈관광 특성상 크루즈선이 오가는 해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서울=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도의회, 인구정책 조례 제정 논의 시동

정책연구실 14일 좌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인구정책 조례' 제정 논의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오는 14일 소회의실(의사당 1층)에서 제7회 정책좌담회 '제주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과 과제'를 개최한다.

정책좌담회는 도의회 정책연구실이 1월 1회 개최하는 논의의 장으로, 제주 현안에 관해 주제에 따라 특강,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정책좌담회는 인구 통계가 그 지역의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교통·환경시

설 등의 인프라 구축의 기준, 그리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모든 정책의 기본 데이터로써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기획됐다.

이날 좌담회는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조례' 주제발표 이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좌담회에서는 제주도의 목표인구 설정, 목표인구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비롯 추진체계를 담기 위한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창업·일자리 창출에 집중 서민경제 활력 122억 투입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사업과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창업·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 총 19개 분야에 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사업과 일자리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화 제고를 위해 11개 분야에 70억5100만원

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을 40개소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 지역생산품 홍보 마케팅, 대도시 향토물산전 개최 지원, 수출기업 해외마케팅도 강화한다.

또 어린이 창업캠프,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 청년 희망 토크콘서트,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 어린이부터 청년·장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육성에 4개 분야에 41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문미숙기자

캄보디아 투자여행

한강의 기적! 메콩강의 기적!

제주 설명회

1차
일시: 2020년 1월 10일(금) 14시 30분
장소: 제주시 한림읍 금남로127 (리온호텔 세미나룸)

2차
일시: 2020년 1월 11일(토) 14시 30분
장소: 제주시 삼로57 (하워드존슨호텔 2층)

※ 참석자 선물증정 (선착순 70명)
추첨: 백화점 상품권(총10명), 현장답사투어권(총6명)

주식회사 씨클럽

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7, 2H타워 4층
제주지사: 제주시 도령로 40 하와이오피스텔 B-2호

064-711-8697, 010-4311-8697 (수사상담)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0년 1월 19일(일) 08:00
장소 · 아구장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탑: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 인 원 : 선착순 40명
• 비 용 : 10,000원(교통비 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 준 비 물 :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도시락 지참하지 마세요)
• 산행코스 : 의약-대병약-소병약-상천리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산악부 기동
1999년 8월 20일 네발 히말라야 초호우(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9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샤판마(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네발 히말라야 로세(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네발 히말라야 안나푸르네(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정 44일간 세계최단기록 성공
2006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네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롬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롬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네발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배려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에서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부장관 명예상수훈(체육부장관 명예상 제51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봉

•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장(010-9838-6552)

사단법인 동려 2020년도 정기총회

경자년을 맞이하여 동려회원 가정에서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사단법인 동려 정기총회를 개최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필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2020년 1월 18(토) 오후 6시30분
장소 동려평생학교 강당

□ 안 건
1) 2019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2)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3) 기타안건

□ 문의사항 연락처: 064) 752-7543

사단법인 동려
이사장 안 식
(동려평생학교, 청소년학교, 교육문화원, 봉사단)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